

축산업의 합리적 발전방향

본 글은 지난 4월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축산신보가 주최하고 한국축산학회가 주관한 “전환기 축산업의 새방향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이란 세미나에서 농촌 진홍청 김강식 차장이 발표한 글을 2회에 걸쳐 전제한다.

편집자주

(전호에서 계속)

4. 쇠고기 자급기반 붕괴

1980년에 한우 1,427천두, 젖소 206.8천두 계 1633.9천두이던 소가 '81년이후 우육 및 생우 수입의 영향으로 1984년말에는 2,651.8천두, 1985년말에는 2942.9천두까지 증가하므로서 암송아지 값은 233.0천원, 솟송아지 325.0천원, 400kg비육우 941.2천원까지 하락되었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소값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번식암소의 도축허용과 암소 수매비축을 실시하여 소값을 회복시켰으나, '85년 이후부터는 소 사육두수가 감소되고 특히 번식암소가 격감되므로서 모처럼 이룩한 쇠고기 자급기반이 붕괴되고 있어 사육두수증식을 위한 번식기 반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더우기 표 10의 '87년말 한우 1923.1천두와 젖소 463.3천두를 기반으로하여 예측되는 쇠고기수요를 공급할 때 연차적으로 소 사육두수가 격감되어 쇠고기 자급율이 더욱 낮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격상승등 어려운 국면에 이르게 되므로 번식기반의 확대는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암소 사육두수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86년 52.2%, '88년 1~3월까지 49.4%로서, 암소도축 적정비율 4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나친 암소 도축현상으로 연령별 암소 사육두수를 보면 1~2세의 암소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육성비육시 솟송아지와 암송아지 가격의 큰 차에 따라 저렴한 암소를 가지고 비육하더라도 솟소 비육보다 소득에 큰 차가 없기 때문에 번식용 암소로 육성해야 될 암소가 비육 도축되어 있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 10월

〈표 10〉 한우 사육두수와 번식암소두수 증감 추세

(單位: 千頭)

	'85. 12	'86. 12	'87. 12	'88. 3
소 전체 두수	2,943	2,807	2,386	2,227
한우두수	2,553	2,370	1,923	1,759
한우암소두수	1,775	1,575	1,294	1,211
2세 이상암소두수	1,047	904	781	754
1~2세암소두수	306	252	183	160
1세 미만암소두수	421	419	330	297

〈표 12〉 암송아지와 수송아지·육성비육시의 소득

	'86. 10 가격		'83. 3 가격	
	수소육성비육	암소육성비육	소육성비육	암소육성비육
개시체중(kg)	149.9	150.4	149.9	150.4
종료체중(kg)	455.9	377.7	455.9	379.7
일당증체량(kg)	0.91	0.68	0.91	0.68
조수입(천원)	1,213.6	1,010.7	1,367.7	1,139.1
경영비(천원)	721.5	513.4	882.0	658.9
원우비	374.0	199.0	534.5	344.5
사료비	303.8	270.7	303.8	270.7
기타	43.7	43.7	43.7	43.7
소득(천원)	492.1	497.3	485.7	480.2

* '86 축시수소·암소 비육비교시험

의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가격과 1983년 3월의 암송아지와 수송아지가격으로 송아지를 구입, 육성비육하더라도 소득에는 큰 차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별도대책이 없는 한, 암송아지의 비육도축에 따른 번식용 암소두수 감소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5. 쇠고기 생산의 경쟁력

최근, 생산비이하로 하락되었던 소값이 생산비이상으로 회복되어 농민의 소사육의욕이 점

증되고 있기는 하나, 미국의 관광호텔 쇠고기 수입압력등으로 정부도 부득이 수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주도적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압력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할 것으로 정부는 비육우 생산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현시점에서 미국과 우리의 비육우생산의 경쟁력과 수입쇠고기와 우리나라 생산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한국과 미국의 비육우 생산비

구 분	한 국		미 국		대 비
	량(kg)	금액(천원)	량(kg)	금액(천원)	
비육우가격 (생체 원/kg)	500	1,350.0 (2,900)	500	568.0 (1,136)	237
경 영 비		1,067.0		532.5	200
비 육 원 우	300	840.0	270	317.0	264
배 합 사료	1,214	170.0	1,608	152.0	111
풀 사료	326	36.0	529	14.5	248
기 타		21.0		48.4	43
소 드		283.5		35.5	797
정 육 가격(원/kg)		6,490.0		4,560.0	

N 발전방향

쇠고기생산성을 위한 소사육의 문제점에서 논의한바와 같은 제반의 과제에 대하여 소사육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쇠고기의 자급율제고를 위하여 무너진 번식기반확대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나누어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1.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번식우확보

쇠고기 수급계획추정에 따라 1988년의 153천톤을 공급하기 위한 번식가능한 암소의 확보두수를 산출하여보면 1987년말 번식우암소 1,294천두중 2세이상 암소 781천두와 1~2세 암소 183천두중 61천두를 합한 847천두를 기초로하여 쇠고기를 자급하는 경우 1988년말 한우의 전

〈표 13〉 적정 성번우 확보두수 추정

년 도	쇠고기수요량(천M/T)			성 번 우 확 보 두 수		
	한 우	젖 소	계	100%자급시	90%자급시	현사육두수기준
'88	141.1	11.9	153.0	1,158.4	1,018.4	842.8
'89	143.5	12.5	156.0	1,166.3	1,023.4	668.7
'90	156.3	14.2	171.0	1,266.6	1,109.9	501.5

체마리수는 1,707천두로 1989년말에는 1373천두로, 1990년말에는 860천두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번식가능한 성유우는 1989년말에 668천두로, 1990년말에는 501천두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쇠고기의 자급률을 이한 전체한우보유두수 2,300~2,400천두와 성유우 1,100~1,200천두를 확보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소득보장을 위한 송아지적정가격유지로 번식우사육의욕제고

2001년까지의 쇠고기 수요는 1981년을 기점으로 384%가 증가되고 이에따라 한(육)우 사육두수는 1985년 2,553천두에서 2001년에는 4,397천두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유지된다. 쇠고기 자급률을 위한 사육두수확보를 위하여는

먼저 농가의 소사육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 송아지 가격의 안정과 사육농가의 소득보장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하고 비육우사육도 될 수 있다.

소사육두수의 확대를 위해서는 송아지생산두수가 도축두수보다 많아야 하며,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1987년기준 송아지 가격이 635.3천원일때 암소의 도축두수와 증가두수가 361천두에서 균형을 이루게됨으로 이 가격을 안정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상한가격과 하한가격의 안정대를 정하여 암송아지가격이 하한가격이하로 하락시에는 암송아지 생산농가에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고 솟송아지가격이 상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에는 비축우육을 방출하는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 송아지가격은 최종생산단계인 비육우가격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므로 비육우가격대를 정하여 하한가격이하로 하락시에는 수매비축과 차액을 생산농가에 보조하고 상한가격이하 상승시 비축우육을 방출하여 연중 상한과 하한이내의 가격안정대에서 소값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번식비육일관사육유도로 송아지생산 및 소득안정

우리나라농가의 소사육단계는 앞에서 논한바와 같이 번식우, 육성우, 큰소비육의 3단계사육과 최근에는 번식우, 육성비육의 2단계사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사육형상에서 번식용 암소사육은 큰소 비육의 월간소득 46.9천원, 육성비육의 월간소득 30.0천원에 비해 송아지 생산 암소 사육은 7.84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번식용 암소 사육확대를 기대하기 어렵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가 생산된 송아지를 직접 육성비육출하하는 사육체계로 전환하여 송아지 가격의 변동에 영향없이 안정소득이 보장되어 번식우사육기반이 정착되도록 한다.

번식암소의 사육규모는 일반적으로 호당 1~2두의 영세소농형태농가가 사육하기 때문에 육성비육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생산된 송아지를 판매하여 현금을 이용하는 등을 고려하여 송아지 판매억제자금으로 송아지가격에 해당되는 돈의 융자와 400~450kg까지 비육하는데 필요한 사료비 등을 융자해주고 비육된 소는 농축협이 책임지고 계통출하판매해주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4. 쇠고기 단위생산성 제고

1987년도 전국소 도축시의 체중을 보면 한우는 평균 377kg, 젖소는 461kg이였고 한우숫소도 416kg, 젖소숫소도 455kg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족되는 쇠고기의 증산을 위하여는 출하되는 소의 체중을 한우 425kg, 젖소 525kg로 높일경우 비육소득도 많아질 뿐만아니라 쇠고기 생산량은 한우 10%, 젖소 21%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소비육과 육성비육공히 비육우생체 kg당 3,000원을 기준으로하여 비육기간연장으로 출하체중을 높인다면 소득도 증가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우수소의 416kg, 출하체중을 450~500kg차지 중체도축 하므로서 부족된 쇠고기를 증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번식노폐암소도 일반적으로 비육하지 않고 출하를 하는데 표17에서 보는 바와같이 2~3개월 단기간 비육출하함으로서 소득도 많아지고 쇠고기도 증산할 수 있다.

〈표 14〉 비육방법 및 기간연장으로 단위생산량 및 소득제고

비육방법 기간	비 육 기간	생 산 량				경 제 성			
		출하체중	정 육 율	정 육 량	자 수	조수입	경영비	소 득	지 수
근소肥育	月 3~4	kg 400	% 39.5	kg 158.0	100	千 원 1,200	1,028.4	171.3	100
	5	450	41.7	187.7	119	1,350	1,101.2	248.8	145
	7	500	43.1	215.5	136	1,500	1,171.6	328.4	192
育成肥育	10	400	41.1	164.4	104	1,200	899.1	300.9	176
	12	450	42.4	190.8	121	1,350	773.2	376.8	220
	14	500	43.4	217.0	137	1,500	1,062.5	437.5	255
貫肥育	14	400	41.1	164.4	104	1,200	648.3	551.7	322
	16	450	42.4	190.8	121	1,350	721.6	628.4	367
	18	500	43.4	217.0	137	1,500	799.1	700.9	409

5. 양질풀사료생산·이용

한우암소사육시 양질풀사료를 충분히 급여함으로서 송아지생산뿐만 아니라 번식내용년한도 연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저질조사료인 벗짚위주로 번식암소를 사육시에는 번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소농규모의 농가가 양질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초지조성을 하여 건초를 사료로 이용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개발되지 않은 야산을 소유한 농가는 많지 않아 현재경작중인 논밭의 유효기간을 이용하여 양질조사료를 생산이용한다면 사료비도

절약할 수 있고 소를 보다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

답리작으로 호맥싸일레지는 36M/T/ha 이탈리안라이그라스싸일레지는 56M/T/ha 생산할 수 있으며 번식비육일관사육형태로 소를 기르는 경우 호맥은 4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5.5두를 사육할 수 있는 양질풀사료가 생산되고 이를 이용하였을 경우 표19에서 보는 바와같이 높은 소득도 얻게됨으로 쇠고기생산기반은 답리작풀사료를 생산이용할 수 있는 농가를 확대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 18〉 양질풀사료 이용과 농후사료 절약

풀 사 료	1 일 급 여 량			절 약 지 수	
	풀 사료	배합사료	금 액	배합사료	풀 사료
벗 짚	5.0kg	2.7kg	732원	100%	100%
호맥싸일레지	18.2kg	1.0kg	592원	37%	81%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싸일레지	16.6kg	0.8kg	433원	30%	59%
牧草 싸일레지	14.7 kg	0.8kg	452원	30%	62%

* 번식 암소 사육시



6. 기술개발과 지도

쇠고기 생산을 위한 한우사육은 타가축에 비해 소득이 낮은 가축이기 때문에 생산능률과 효율을 개선 향상시켜 타가축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첫째 : 분만간격단축 및 번식율향상이다.

현재 한우의 번식간격은 15개월정도로 이를 13개월로 단축시킨다면 년간번식율은 67%에서 78%로 향상되는 결과가 되고 송아지 1두생산을 위한 경영비도 321천원에서 278.4천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둘째 : 한우능력개량으로 생산비절감과 소득향상이다.

현재 한우수소 18개월령 체중 450kg을 550kg으로 능력을 개량하면 쇠고기증산과 더불어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 양질풀사료생산 이용이다.

번식우는 물론 비육우에 있어서도 양질풀사료를 최대로 이용하고 최대생산을 위한 부족된 양분양만을 배합사료로 공급하므로서 사료비절감을 기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 수입국과의 품질경쟁을 위한 양질육생산이다.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양질육생산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와 지도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한우 육성비 육시의 비육기간연장에 따라 수입육과 대등한 육질의 쇠고기생산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금후 이 분야의 연구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5 종합결론

가. 쇠고기 자급율제고를 위한 한우번식암소 적정두수 확보대책강구

나. 소값 및 사육두수 증가폭축소로 사육농가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할 수 있는 소값 안정기준가격제도운영

다. 항구적인 암소사육농가보호 및 번식기반 확대를 위한 복합형농형 번식비육일관사육농가 육성

라. 쇠고기 단위생산량 및 비육소득제고를 위한 출하체중 상향유도와 노폐암소의 비육권장

마. 한우 육우사육 및 쇠고기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도사업강화